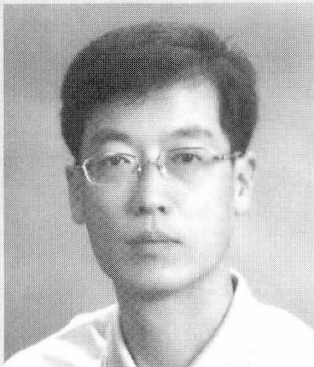


## 자동 라벨링시스템 구축의 일등공신 고객만족최우선



이재남  
(주)선진에스엠 이사

“최상식 사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분들의 성과를 제가 대신 수상하는 영광을 얻은 것 같습니다. 뒤에서 수고해주시고 묵묵히 지원해주신 저희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평소 아껴주신 고객사, 지원을 아끼지 않은 포장기계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한국포장기계대상 품질관리부문을 수상하게 된 (주)선진에스엠 이재남 이사는 수상의 영광을 회사의 모든 직원들에게 돌렸다.

(주)선진에스엠은 1982년 선진기계공업사로 출발, 1983년 스티커라벨 자동 부착기 개발성공 이래 25년간 스티커라벨기만을 개발 제작하여 약 1500여대를 수출 하였다. 기타 특수산업 전문용 개발 고속용(800PCS/분) 개발 등 스티커라벨부착기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렸으며 수준 높은 기술과 고품질 기계로 고객에 선보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주)선진에스엠은 국내FA(공장자동화) 실정에 맞는 자동 라벨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라벨링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매김했다.

또한 우수한 제품력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이 회사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의 수출 장벽을 뚫고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재남 이사는 그간 (주)선진에스엠에서 근무하면서 원형 및 사각형 등의 용기 상부 혹은 하부에 정밀(준 고속) 부착기를 개발하고 뚜껑 부착용 라벨기와 립스틱 등 용기 하부

# 철저한 포장관리와 A/S로 100% 고객만족 위해 노력

부착을 적용시켰다. 특히 프랑스 명품 화장품인 입생로랑 등에 제품을 수출하고 국내 화장품 회사에 기계를 납품, 설치하는 등 생산성 효과를 톡톡히 올리기도 했다.

또한 그는 건전지, 주사용 앰플, 바이알 등 고속형 라벨기 상용화에 성공하였고 고속 라벨기 첨단화 개발의 일등공신이기도 하다.

특히 비전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라벨부착유무검사와 활자검사(일부인, 제조번호 등) 시스템을 적용, 불·양품을 선별 추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실적인 자동화를 실현시키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스캐너 시스템 도입으로 제약 산업 등에 적용되는 시스템을 통해 라벨과 제품의 일치성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기계적으로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도입, 상용화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이 이사는 품질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객 만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고객에게 100점을 받는다는 것은 힘들지만 100점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임무고 사명”이라고 말했다.

고객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는 이 이사는 항상 “작은 씨앗이 큰 열매가 된다”는 좌우명을 바탕으로 품질관리에 매진하고 있다.

이 이사는 특히 “고객이 열악한 작업 생산현장에서 선진에스엠의 제품을 통해 생산효율을 높여 작

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객의 부가 가치를 높였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말했다.

현재 포장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한 무분별한 가격 경쟁으로 제품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고객만족을 최우선시 하고 있는 이재남 이사에게도 아쉬울 따름이다.

이 이사는 “높은 물가와 함께 인건비는 상승하는데 비해 기계가격은 오히려 내러가는 추세로 현재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포장관련 단체에서 포장산업의 품질 및 질적 향상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 이 어려움을 타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앞으로 이재남 이사는 고품질 기계를 만들어 더욱더 수출을 확대하고 저가산 제품이 유입되면서 생기는 가격 경쟁에서 양질의 제품을 보급하여 어려움을 타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진에스엠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A/S로 100% 고객 만족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회사가 동종업계에서 꾸준히 선두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꾸준히 연구개발을 해오며 회사 발전의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재남 이사.

그는 급변하는 국제시장과 무한경쟁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로 선진에스엠의 미래를 계속 책임질 것이다. ☞

이한얼 기자